

임팩트그라운드

사업결과 보고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최종보고서 : 지리산이음



2024년 사업개요

사업명	2024 지리산이음 - 지역과 의제 노드의 네트워크 확장과 커뮤니티의 구성과 지원
제출일	2025년 1월 19일
목 표	지역(Local)과 의제(Agenda) 노드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점과 선들이 만나 커뮤니티를 이루게 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리산권 여러 지역과 공간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한다.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총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3년간)
사업 내용	- 산내면 및 지리산권 지역에 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지원 -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의제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과 비영리 생태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위치 정립



주요 사업 및 성과 요약

1. 마을 : 토닥의 마을 활동 및 교육 사업



● 사업개요

○ 마을교육사업

■ 산내소셜픽션

- 10년 후 산내를 함께 예측해보고, 그 예측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마을 미래 상상 프로그램
- 2024년 4월~6월 총 3회 프로그램 진행

■ 00수다회

- 7월~9월, 소셜픽션에서 심화된 세부주제 이야기모임 진행 (3회)
 - 주제 : 마을과 문화예술, 함께 나이들기, 마을일과 나

■ 후속 의제모임 지원

- 7~12월, 소셜픽션에서 심화된 후속 의제모임 운영 지원
 - 행정참여 : 적극적시민모임 (5회)
 - 의제발굴 : 00북클럽 (11회)
 - 문화예술 : 산내뮤지엄 (24회)
 - 마을연구 : 산내학 바깥대학원 (8회)

■ 지리산쌀롱

- 다른 지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의 토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로컬 활동가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
- 4월~12월, 총 5회 프로그램 진행
 - 활동 지역 : 울주, 의성, 합천, 강화, 인제
 - 활동 영역 : 생활기술, 시와 농사, 자립/자급, 문화기획 등

○ 마을활동사업

■ 마을교류회 풍당

- 마을 주민 중에서 호스트를 지정하고, 특별한 취미와 경험 나눔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

- 5월~9월, 총 3회 프로그램 진행

- 주제 : 차, 와인, 인도살이

■ 월간사람책

- 5월~10월, 마을활동가 인터뷰 진행 (4인)
- 6월~12월,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사람책 프로그램 진행 (4회)
 - 인터뷰 대상 : 이재향 (비니루없는협동조합), 임선주 (마야합창단), 김수정 (소설가), 김현정 (살림꽃협동조합)

■ 멤버십 프로그램

- 4월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 영화 프로젝트 "세 가지 안부" 살래마을 상영회 진행 (1회)
- 11월 9일, 의성 X 지리산 교류회 : 의성무원칙주의가 추천하는 전통주 시음회 개최

○ 기타

■ 지리산문화공간 토닥 재오픈

- 기존의 마을카페 공간에서 마을에서 열린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공유공간/안내소 컨셉으로 리브랜딩하여 새롭게 오픈
- 어린이 돌봄공간이기도 했던 토닥의 특성을 살려, 일부 공간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예술공간 '새록'에 무상 대여

■ 대정길 페스티벌

- 11월 2일,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의 지원으로, 토닥이 위치한 '대정길'의 젊은 세대 공유공간 활동가 중심의 마을 축제 개최
- 축제를 통해 연결된 활동가들과 지속적인 연결을 도모함
 - 책 모임, 흥동면 마을 탐방 등

■ 자율적인 마을 행사와 모임 진행

- 환경영화제, 수리권 워크숍, 협동조합 공부모임과 책모임 등

● 성과와 평가

○ 마을 활동의 주된 파트너를 찾고 연결하는 한 해

- 내부 공사를 거쳐 오픈 후 첫 행사였던 '산내소셜픽션'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여러 의제를 확인하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활동의 파트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이 파트너들과의 만남을 여러 분야의 의제 모임과 마을 축제, 지역 탐방으로 연결하며 지속해오고 있으며 2025년에도 함께 공부하고 확장되는 연결 지점을 늘려나가고자 한다.

○ 열린 연결의 장이자 함께 돌보는 커먼즈의 시작

- 마을 카페에서 공유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출을 얻는 수익 사업보다 토닥을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활동에 집중하여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를 통해 공간을 유지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뜻이며, 토닥의 2024 년은 이러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
- 토닥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마을 주민들이 관심 있는 의제로 모임을 직접 운영해볼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홍보 활동 등에 있어서도 마을 SNS 에 집중하여 직접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토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5 년 1 월에는 마을 모임에 공간 돌봄을 맡기는 방식의 운영을 실험해보고 있다.

○ 다른지역과 활동가들과 그들의 활동을 지역과 연결

- 지리산쌀롱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활동의 교차점등을 확인하며, 우리지역과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역에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지리산 X00 지역의 활동들을 기획하여 그 시작으로 청년 양조장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관련 콘텐츠

- 2030 년의 산내는 어떤 모습일까? - 제 1 회 산내소셜픽션 후기 ([링크](#))
- 월간사람책 임선주 인터뷰 ([링크](#))
- 지리산쌀롱 유영순 "마을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란다" ([링크](#))
- 함께 췌는 첫 단추, 대정길 페스티벌! ([링크](#))

2. 지리산권 : 작은변화 활동 및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작은변화 활동 사업

- 작은변화 운영위원회 4 회 개최 : 지리산권 5 개시군을 대표하는 활동가들과의 지역 현황 공유를 위한 모임 개최
- 지역별 작은변화 활동 지역별 워크숍 5 회 : 지리산권 5 개 시군별로 주요 사업을 운영할 지역 활동가들과의 지역별 워크숍 개최
- 지리산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인터뷰
 - 로컬뮤지션 (4 회), 청년 기자 (1 회)
- 지리산 활동가 이야기잔치 1 회 개최 (70 여명 참석) : 지리산권의 공동체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한해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잔치를 개최함

○ 작은변화 지원 사업

■ 지리산권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다시, 지리산운동 : 궁금해 지리산, 오삼으로부터 전시 활동 지원
- 지리산촉진자모임 : 민주시민교육 학습 워크숍 및 책읽기 모임 지원
- 자원순환 모임 : 남원 비니루없는 점빵, 하동 모두의 가게, 함양 오후공책, 산청 공간산아, 구례 순환공간 선물이 참여하는 학습모임 개최, 광주,전주, 서울 사례 탐방
- 청소년공간운영자모임 : 산청 명왕성, 남원 인월 청온, 남원 산내 룰루랄라, 함양 청소년 기획단등 청소년 공간운영자들의 활동 공유와 학습 모임 운영
- 지리산 뮤지션 네트워크 (워크숍) : 산청-함양 빈동밴드, 남원 산내재즈밴드, 구례 소소한밴드, 합천 서와콩이 모여서 지역에서 밴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워크숍 개최

● 성과와 평가

- 지리산권으로 네트워크를 확장

- 2024년에는 지리산권으로 다양한 의제와 이슈를 다루는 활동들이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름다운재단의 작은변화지원사업이 없었겠지만, 지리산권내에서 작은변화활동을 지원이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은 개별 지역보다는 지리산권에서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와 이슈를 지원하는것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리산이음은 5개 의제에 관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했고, 개별 활동의 흐름과 네트워크 활동 지원 흐름이 잘 연결되면서 네트워크가 개별 활동을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어진다.

○ 지리산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연대운동의 고민을 이어가고 있음.

- 케이블카, 지리산댐, 산악열차, 지리산골프장등 무수한 개발이슈가 산재해있지만, 지리산권 시민들의 힘으로 지리산은 그나마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리산권 시민사회는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넘어 지리산을 가치있게 보존하는 운동으로 연대운동을 성격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리산이음의 역할을 찾고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관련 콘텐츠

- 지리산 로컬뮤지션, 남매밴드 서와콩 인터뷰 ([링크](#))
- 함양 청년기자/활동가 최학수 인터뷰 ([링크](#))
- 다시지리산 운동 모임 '궁금해? 지리산' 구례편 후기 ([링크](#))

3. 전국 : 의제 커뮤니티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6기 운영
 - 7.24(수)~26(금), 2박 3일 동안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에서 진행
- 산책클럽 2회 진행
 - 1인출판사 목수책방과 지리산사람들 활동가 윤주옥님의 책을 연결하여 진행
 - 옥천지역 기자 박누리가 추천하는 책으로 진행
- 로컬 x 여성 x 삶 캠프
 - 시골언니들의 000 교차로
 - 울주, 의성, 수원, 포항, 논산, 천안 등 전국에서 참여한 참가자 23명
- 산내면 X 홍동면 면대면 학습여행

● 성과와 평가

- 비영리 중견활동가들의 커뮤니티가 확장, 지속되고 있음.
 - 비영리 커뮤니티 캠프를 통해 지역과 분야의 경계가 없는 지지와 환대의 커뮤니티가 본 사업을 통해 계속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는 10기까지 계속 지속하기로 할 정도로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은 편이며, 전국적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함께 대구와 대전의 경우 6기까지 참여한 지역별 멤버들간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 영역의 확장
 - 산책클럽 및 로컬 x 여성 x 삶 캠프 등을 통하여 기존에 지리산이음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 다양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썩을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 관련 콘텐츠

- 비영리커뮤니티캠프 6기 사진 : [마지막 날 회고 시간 후 단체사진](#)
- 산책클럽 후기 ([링크](#))
- 로컬 x 여성 x 삶 캠프 : 시골언니들의 OOO 교차로 후기 ([링크](#), [링크 2](#))
- 산내면 X 홍등면 면대면 학습여행 ([링크](#))

4. 전국 : 지리산포럼2024



● 사업개요

- 지리산포럼 2024 : 새로운 바람을 잇다
 - 10 월 1 일부터 5 일까지 총 5 일간 진행
 - 약 180 여 명이 참여하고 25 개 기관이 협력운영
 - 새로운 참가 옵션(부분 참여), 새로운 숙박 형태(숙박 없이 프로그램만 참여) 선택지 제공
 - 데이터와 기술, 로컬 청년 활동, 노동, 민주주의, 중장년 활동가의 삶 등 시의적으로 주목해야 할 주제와 거시적인 주제들을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

● 성과와 평가

- 처음 와도, 혼자 와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포럼
 - 그간 10 년의 지리산포럼은 다양한 형식과 운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10 년을 맞이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올 해는 특히 신규 참가자, 개인 참가자 비중을 높이려고 운영상의 노력을 하였다.
- 지리산포럼 10 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운영과 형식에 대한 고민을 남김.
 - 협력주체들이 자신의 의제를 직접기획하여 진행하여 다양하고, 였다. 전 참가자가 제안하는 프로그램 호응
 -
- 마을과 함께하는 지리산포럼
 - 마을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마을 주민과 연계성 높임
- 관련 콘텐츠
 - 지리산포럼 2024 특설 페이지 ([링크](#))
 - 기사 소셜임팩트 뉴스 : 지리산 가득 채운 공감과 환대, 활동가의 안식처 '지리산포럼 2024' 현장을 가다 ([기사 링크](#))

5. 전국 : 작은변화 연구소 및 교육 연수



● 사업개요

○ 작은변화 연구소

■ 변화를만드는 사람들 인터뷰 콘텐츠 20 개

- 7 월 1 일부터 5 일간 진행된 공익활동가주간과 연계하여 인터뷰 진행. 13 명의 인터뷰어와 20 명의 인터뷰이, 20 개의 인터뷰 콘텐츠

■ 제 1 회 한일로컬포럼

- 8.29(목)~30(금) 1 박 2 일 일정으로 20 명의 초대자들과 함께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에서 진행

● 발표자 및 발표/토론내용

- 김정선(히가시카와정 한국사무소) : 홋카이도 히가사카와의 마을지속전략
- 양석원(자유학교) : 일본의 마을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 히가시카와 마을 사례
- 강내영(연구공방 사람) : 일본 마을만들기사업, 어디까지 와있나?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정수경(즐거운도시연구소) :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빛과 그림자
- 조희정(더가능연구소) : 한국의 로컬 정책,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 교육 연수

■ 치앙마이 위케이션

- 1.15(월)~29(월) 14 박 15 일 일정으로 18 명의 초대자들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에서 위케이션 진행

■ 국내외 로컬탐방

- 일본 히가시카와 로컬탐방
- 광주, 수원 등 활동가 교류

● 성과와 평가

○ 사업의 확장 및 지속

- 전국 지원조직들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준비한 공익활동가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인터뷰'를 채택함으로써,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지속성과 콘텐츠 확장성에 기여하였다. 2025 년에도 공익활동가 주간 주요 사업으로 변화를만드는사람들 인터뷰 지속하기로 하였다.
- 활동가들의 해외 일·휴식·교류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했던 2024 년 치앙마이 워크케이션 또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을 통하여 계속이어져가게 되었다.

○ 한일 로컬 교류를 위한 첫 시작.

- 로컬에 대한 관심과 지원,투자가 많아지면서 일본 로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에서 로컬에 관심있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의미있게 평가하였다.
- 특히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재팬파운데이션)의 관계자도 참여함으로써 일본 현지와의 연결과 협력의 가능성을 높였다.
- 첫 회에는 국내 연구자와 활동가만 모였지만 향후에는 일본 로컬 전문가,연구자,활동가를 초대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다.

○ 관련 콘텐츠

- 공익활동가주간 연계 -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인터뷰 기록](#)
- 한일로컬포럼 사진 : [한일로컬포럼이 끝난 후 발표자들과 함께](#)(사진)
- 히가시카와 탐방 [기록](#)
- 비영리 워크케이션 in 치앙마이 [기록](#)

6. 일반 운영



● 사업개요

- 이사진, 이사장 변경 및 조합원 확대를 통한 운영구조 전환
- 후원회원 확대 캠페인을 통해 113 명 증가
- 사업별로 분리되어 있던 홈페이지를 지리산이음(jirisaneum.org)으로 통합
- 들썩 및 토닥 공간 개선
 - 토닥 공간 성격 변경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새록 진입로 공사
 - 들썩 진입로 비가림 회랑 조성 및 사무국 IT 업무환경 개선